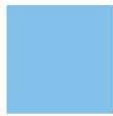




2012년 5월 17일

#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    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 투자전략

전일 시장 하락에 대한 우리의 판단

## • 이머징마켓 동향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화권 증시 약세

##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인프라웨어 외 4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세코닉스 외 5종목

## • 산업/기업분석

전기전자,

SBS콘텐츠허브, 농심, 네오위즈게임즈, 네패스,

다우기술, 신세계, 에스엠, 유진테크

## • 스몰캡분석

인지컨트롤스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증시 캘린더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5/09(수)	05/10(목)	05/11(금)	05/14(월)	05/15(화)	05/16(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50.29	1,944.93	1,917.13	1,913.73	1,898.96	1,840.53
	등락폭	-16.72	-5.36	-27.80	-3.40	-14.77	-58.43
	등락종목						
	상승(상한)	295(11)	381(8)	198(8)	259(21)	211(14)	178(14)
	하락(하한)	536(1)	431(0)	606(1)	569(2)	616(0)	669(3)
	ADR	86.12	85.08	80.80	73.31	70.91	66.96
	이격도						
	10 일	98.80	98.61	97.43	97.57	97.22	95.00
	20 일	98.44	98.29	97.06	97.12	96.60	93.97
코스닥	투자심리	50	50	40	30	20	10
	거래량 (백만 주)	463	418	530	392	517	420
	거래대금 (십억 원)	4,894	4,380	4,335	3,965	5,115	5,469
	코스닥지수	491.56	494.27	493.66	488.53	480.50	465.01
	등락폭	-3.04	2.71	-0.61	-5.13	-8.03	-15.49
	등락종목						
	상승(상한)	306(16)	522(17)	290(16)	251(17)	249(11)	137(6)
	하락(하한)	635(2)	395(5)	641(2)	695(11)	708(4)	825(5)
	ADR	89.75	91.94	89.14	78.81	74.05	69.63
코스닥	이격도						
	10 일	101.25	101.59	101.11	99.86	98.19	95.42
	20 일	100.20	100.65	100.45	99.51	98.08	95.26
	투자심리	50	60	6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460	485	491	494	524	478
	거래대금 (십억 원)	1,686	1,673	1,845	1,918	1,883	1,618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706.8	1,053.8	1,309.1	226.3	172.4	499.7	104.9	60.6	245.1	445.6
	매도	2,434.6	1,552.7	1,269.0	227.9	161.4	521.0	102.2	52.9	203.7	259.0
	순매수	272.2	-498.9	40.1	-1.5	11.0	-21.2	2.7	7.7	41.4	186.5
	05 월 누계	1,912.1	-2,697.5	602.9	41.8	104.7	242.4	-27.1	92.7	148.4	182.5
	12 년 누계	-2,996.9	8,161.9	-2,429.9	565.4	1,187.2	-3,448.0	-3.0	454.7	-1,186.0	-2,735.1
코스닥	매수	1,502.0	54.7	66.9	5.6	8.4	28.9	4.8	3.4	15.9	15.5
	매도	1,492.1	72.7	63.0	5.3	7.0	24.6	9.2	7.5	9.4	11.2
	순매수	9.8	-18.1	3.8	0.3	1.3	4.2	-4.5	-4.1	6.5	4.4
	05 월 누계	-118.4	-81.0	159.1	20.0	46.0	52.6	3.5	4.9	32.2	40.3
	12 년 누계	1,082.6	-50.4	-627.5	-77.7	-8.3	-410.6	-19.5	-34.9	-76.5	-404.7

## 전일 시장 하락에 대한 우리의 판단

5월 월간 밴드	1,900-2,050pt
2012 연간 밴드	1,700-2,250pt
12MF PER	8.43배
12MF PBR	1.02배
Yield Gap	8.5%P

- ▶ 최근 시장 상황 점검 : DXY로 보는 시장
- ▶ KOSPI 1,800선은 12MF PBR 기준 1배 지점 : 중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 ▶ 투자전략 : 그러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 Show me the growth

### ■ 최근 시장 상황 점검 : DXY로 보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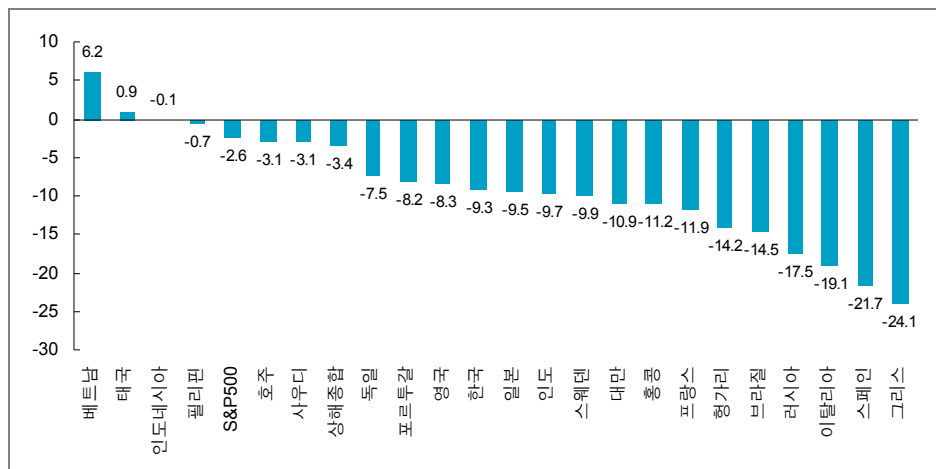
#### KOSPI와 DXY

전일 KOSPI가 하루만에 3% 빠져 4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밀려났다. 외국인은 5월 들어 현물을 누적으로 3.3조원 순매도했고 선물은 3월 쿼터러플워칭 이후 누적 순매도를 2만 계약이나 쌓았다.

1차적인 문제는 유럽이다. 그리스 연정구성 실패로 유럽발 위기가 재차 고조됐고 내달 17일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재협상과 긴축 반대'를 주장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제 1당을 차지하면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2년 2월 29일, 즉 2차 LTRO 대출 실행 이후 주요국 증시 등락률을 계산해보면 유럽의 재정위기국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리스는 24%, 스페인은 22% 빠졌고 이탈리아는 19% 하락했다. 베트남과 태국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평균적인 수준이다.

[그림 1] 2012년 2월 29일 2차 LTRO 이후 주요국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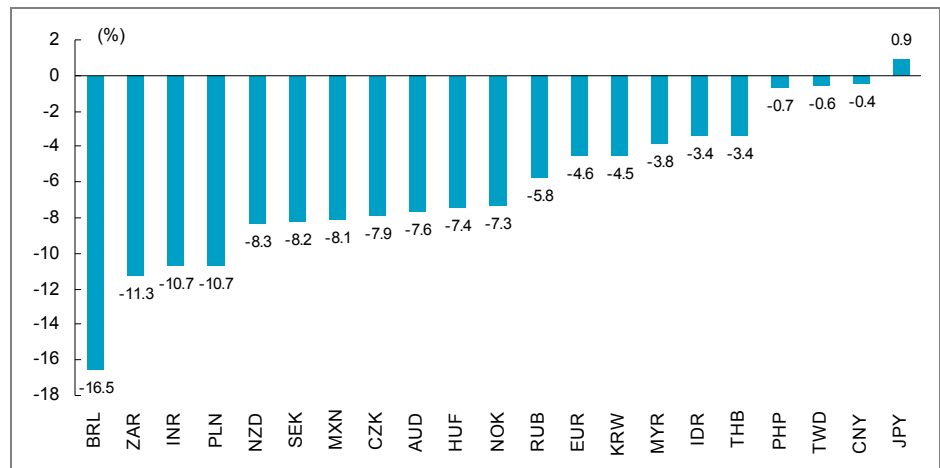


주 : 아시아의 경우 2012년 2월 29일 종가 대비 2012년 5월 16일 종가로 계산했으며, 유럽은 5월 16일 오후 8시 기준, 미국은 5월 15일 종가 기준 수익률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러나 이는 환율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계산법이며, 자국 통화 절하율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문제는 유럽에서 터졌지만 국제자금들이 일제히 리스크 회피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주변 신흥국의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이후 절하폭이 가장 컸던 통화는 유로화(-4.6%)가 아니라 브라질레알(-16.5%), 남아공랜드(-11.3%), 인도루피(-10.7%), 폴란드兹로티(-10.7%)였다. 한국 원화는 3월 이후 4.5% 절하돼 상대적으로 약세폭이 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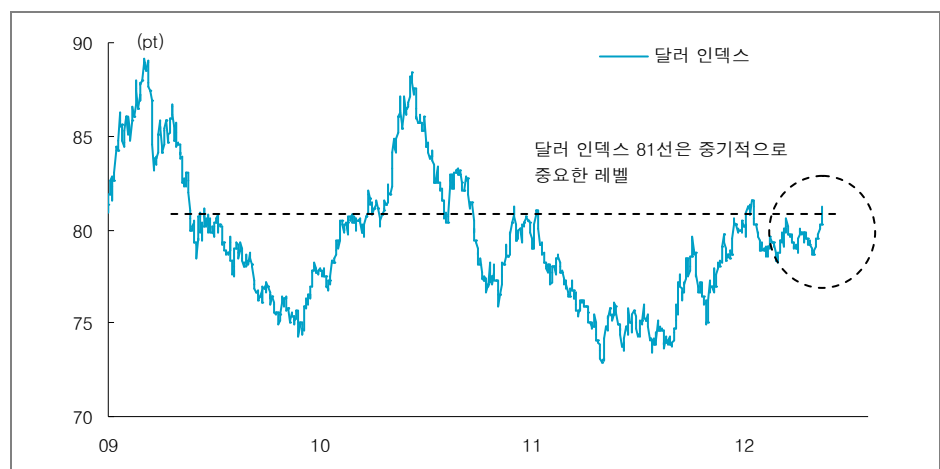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급격한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최근 달러 인덱스는 81pt 까지 상승했는데 지난 몇 년간 81선은 위험자산 선호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늘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했었다. 달러 인덱스가 81선에서 맞고 떨어지면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강화됐다.

[그림 2] 2012년 2월 29일 2차 LTRO 이후 주요국 통화가치 등락률



주 : 2012년 2월 29일 종가 대비 2012년 5월 16일 오후 8시 기준 시세 (아시아는 마감 환율 적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달러 인덱스 81선은 중기적으로 중요한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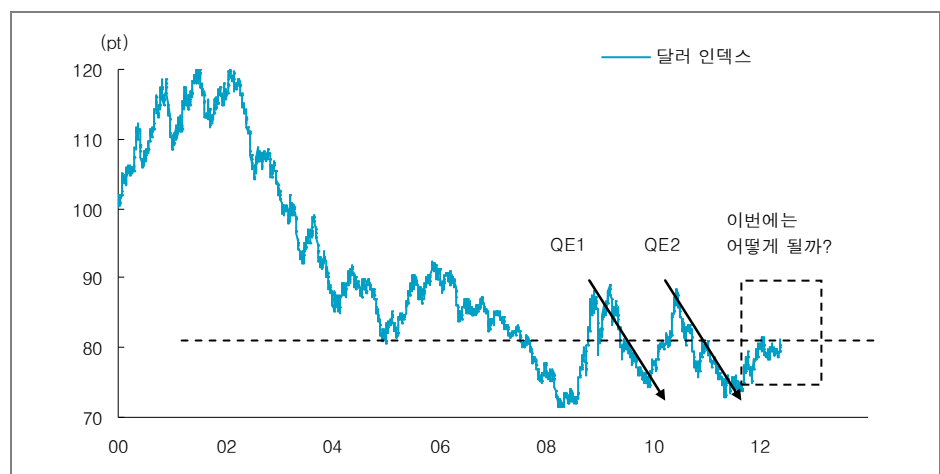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러나 2010년 5월엔 그리스 구제금융 이슈와 FRB 1차 양적완화 종료 우려가 겹치면서 달러 인덱스가 81선을 훌쩍 넘겼고 KOSPI는 단번에 13%가 밀렸고 원화는 달러 대비 1,100원에서 1,280원까지 16%나 절하된다. 달러가치로 환산하면 30% 가까이 밀린 셈이다.

이번에도 달러 인덱스가 81선에서 맞고 떨어질까. 그게 아니라면 81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까. 이는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다. 2000년 이후 신흥시장의 구조적인 강세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긴 했지만 FRB의 통화 완화와 달러 약세, 유동성의 이동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4] 달러 인덱스 81선은 중기적으로 중요한 레벨 :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KOSPI 1,800선에 대한 판단 : Show me the growth

KOSPI 1,800선은  
12MF PBR 1배 지점  
: 그러나 본격 반등 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일단 우리는 KOSPI 1,800선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한다. 당사 유니버스 추정 실적 기준으로 12MF PBR 1배 지점이 1,800선이기 때문이다. 근자의 상황이 진통 끝에 합의로 마무리되고, 2008년처럼 실물가치와 장부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기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KOSPI 1,800선은 중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표 1> 한국투자증권 유니버스 추정실적 기준 밸류에이션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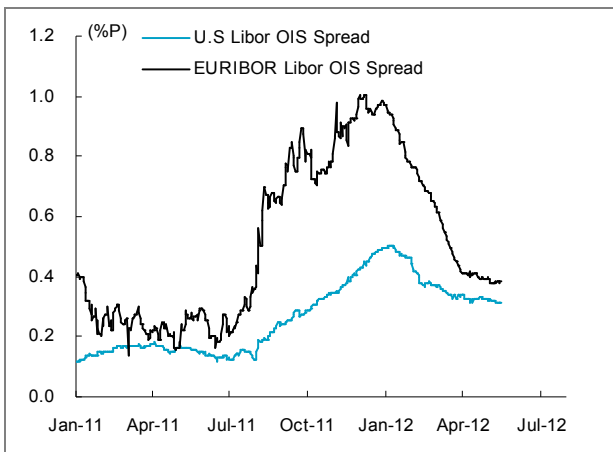
KOSPI	12MF PER (X)	12MF PBR (X)
2,000	9.16	1.11
1,950	8.93	1.08
1,900	8.70	1.06
1,850	8.47	1.03
<b>1,800</b>	<b>8.24</b>	<b>1.00</b>
1,750	8.01	0.97
1,700	7.79	0.94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러나 1,800선을 터치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V자 반등을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판단한다. 표면적으로는 여러가지 이벤트들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6월 17일 그리스 총선도 문제고 6월 10일과 6월 17일 치러질 프랑스 총선도 걱정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염이라도 된다면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골치 아픈 국면이다. 미국의 경우 6월 말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지만 6월 20일 FOMC에서 3차 양적완화를 결심하기엔 뭔가 상황이 모호하다. 재정벼랑(fiscal cliff) 논쟁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도 걸림돌이다. 중국은 10월 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적극적인 경기부양보다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지준율 인하 등 미세조정은 있겠지만 적극적인 경기부양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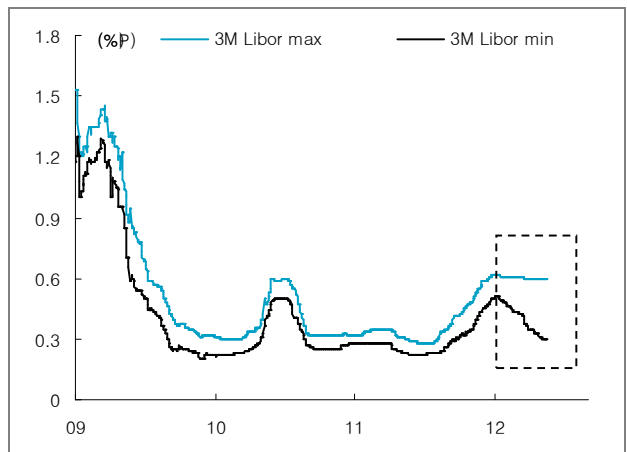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가 아니라 성장(growth)에 대한 확신(conviction)이다. 시장은 통화를 완화하여 위기를 넘기는 물권처방이 아니라 정면돌파를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달러 인덱스 81선이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본다.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 5] 유럽 관련 은행 리스크 지표는 안정적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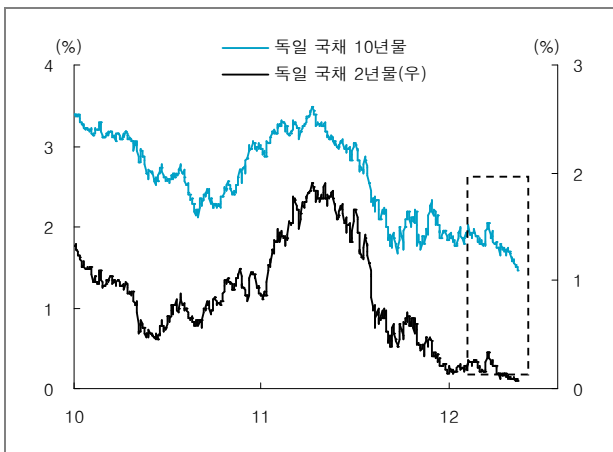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은행간 리보금리 차이는 점차 벌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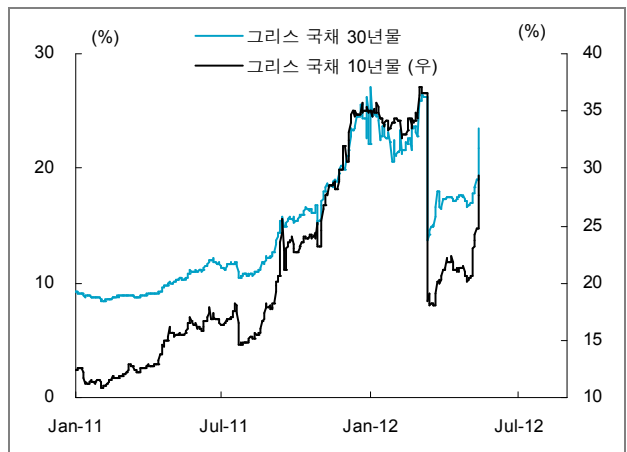
자료: BBA,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직전 저점을 경신하는 독일 국채 금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다시금 급등 중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KOSPI 1,800선은  
12MF PBR 1배 지점  
: 그러나 본격 반등 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 ■ 투자전략 :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KOSPI 1,800선은 12MF PBR 기준 1배 지점이며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KOSPI 1,800선 근처는 1차적으로 분할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한다. 우리 주식시장이 장부가치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요인들로 인해 V자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힘든 구간이다. 상당 기간 아래 위로 출렁이는 가운데 기간 조정이 동반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그간 전망했던 스트레스 요인들이 작년 8월과 9월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최근의 요인들은 당사가 기존에 제시했던 ‘상저하고’의 전망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올해 연말까지 KOSPI 밴드는 1,800~2,200pt로 제시한다.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화권 증시 약세

- ▶ 중국 4대 은행 5월 신규대출 증가세 0%에 그쳐
- ▶ 중국 철도부, 올해 1~4월 철도 고정자산 투자 895.97억 위안, 전년대비 48.3% 감소
- ▶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 실패 소식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로 글로벌 증시 약세

상해지수 약세 마감  
은행 등 대부분 업종 약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다.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가 실패했다는 소식과 뉴욕 증시가 연일 하락한 영향으로 전일 대비 5.54p 하락한 2,369.90p로 출발했다. 중국 4대 은행의 5월 신규대출 증가세가 4월달에 이어 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건설은행이 1.74%, 공상은행이 0.69% 하락했으며, 중국은행과 농업은행이 각각 0.66%, 0.75%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어제 발표된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중국 투자가 급감했다는 소식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급랭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업종은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출판(-2.92%), 농업(-2.06%), 은행(-1.78%), 보험(-1.8%), 증권(-1.75%), 항공운수(-1.65%), 제지(-1.35%), 부동산개발(-1.38%), 금속(-1.2%), 식품음료(-1.26%), 전자(-1.07%), 여행(-1.19%) 등을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페트로차이나가 0.83% 하락했으며 선화에너지도 1.08% 약세를 기록했다. 연저우 광업과 쓰진광업도 각각 1.63%, 1.45% 떨어졌다. 반면 임업과 부동산중개는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홍콩H지수 급락 마감  
자동차, 정유 등 대부분 업종 약세 주도

## ■ 홍콩 시장

홍콩 H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리스 연립정부 합의 실패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변국 국제 수직률이 급등세를 연출하는 등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며 지수는 하락 출발했다. 오후 들어 지수는 낙폭을 확대하며 전일 대비 3.4% 하락한 9,741.97p로 마감했다. 대부분 업종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종목별로는 장시동업(-6.0%), 연저우광업(-5.5%), 중국석탄에너지(-6.9%), 중국 교통건설(-5.0%), 중국민생은행(-6.2%), 차이나텔레콤(-4.8%)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5/16(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46.19	-1.21	-2.59	-2.09	6.67
홍콩 H	9,741.97	-3.40	-5.94	-12.08	-1.96
인도 SENSEX	16,010.40	-1.95	-2.85	-7.55	3.59
러시아 RTS	1,369.14	-2.26	-8.08	-14.11	-0.92
브라질 보베스파	56,237.97	-2.26	-6.84	-9.03	-0.91
베트남 VN	449.91	-1.26	-7.73	-5.04	27.98
MSCI 이머징마켓	946.10	-0.62	-3.25	-7.79	3.24

주: 16일 오후 5시 30분 기준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b>영원무역(111770)</b> <b>▶25,300(+4.12%)</b>	<b>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2분기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li> <li>- 프리미엄 · 신규 바이어를 중심으로 바이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 수직계열화 완성으로 원가절감 효과 기대</li> </ul>
<b>젠타(082270)</b> <b>▶36,650(+1.24%)</b>	<b>폐암 백신 상용화 기대감에 상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암백신 'GV1001'의 체장암에 대한 임상 3상 종료를 앞두고 임상 완료 후 본격적인 글로벌 판권계약 논의가 예상됨에 따라 상용화 기대감에 상승</li> <li>- 체장암 임상3상은 총 세 차례에 걸친 임상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확인돼 향후 긍정적인 임상결과 기대</li> </ul>
<b>유니더스(044480)</b> <b>▶1,480(+9.23%)</b>	<b>흑자전환 소식 및 지분 가치 상승 기대감에 급등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발 재정 위기 우려감이 확산되며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는 가운데 1분기 흑자전환 소식이 더해지며 급등세</li> <li>- 아울러, 오는 7월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와 인접한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li> </ul>
<b>반도체주</b>	<b>애플과 엘피다의 동맹 강화 우려감이 확산되며 급락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플이 일본 엘피다에 모바일 D램을 대량 주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자 애플과 엘피다의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급락세</li> <li>- 성우전자(081580, +10.36%), SK하이닉스(000660, -8.89%), 하나마이크론(067310, +8.55%), 삼성전자(005930, -6.18%), 심텍(036710, -5.56%), STS반도체(036540, -5.10%) 등 하락세</li> </ul>
<b>SNS 관련주</b>	<b>SNS를 활용한 소셜쇼핑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셜쇼핑 활성화를 위해 페이스북과 홈쇼핑 채널을 통해 직접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소셜쇼핑을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li> <li>- 인포뱅크(039290, 상한가), 가비아(079940, +7.19%), SK컴즈(066270, +2.76%), 케이아이엔엑스(093320, +1.23%) 등 강세</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인프라웨어 외 4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인프라웨어 (041020)	8,070 (-18.0)	9,840 (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오피스는 높은 편의성과 호환성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판매할 고객사의 주력 모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며, 스마트폰 저가형에는 에디팅 기능이 빠진 뷰어 모델로 대응 가능하므로 추가적 매출 확대 가능</li> <li>- 신규 사업으로 오픈 마켓 및 출판사업에 대한 기대 유효.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도 부각 가능성 상</li> </ul>
에스엘 (005850)	18,950 (+8.0)	17,550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적인 고객다변화, LED 램프의 시장 확대.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성장세 가속화 전망</li> <li>- 안정적인 수주 증가세와 제품믹스 개선 등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 예상</li> <li>- 전속고객에 대한 높은 매출비중, 높은 경쟁강도 등의 할인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쟁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및 자산가치 부각 가능성 상존</li> </ul>
LG전자 (066570)	67,700 (-11.7)	76,700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폰 부문의 경우 상반기에는 1)저가폰 축소, 2)마케팅비용 효율화, 3)비용절감 등을 통해 흑자기조 정착에 초점. 하반기에는 flagship이 기대되는 3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수익성 개선 예상. 또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요인(기술→원가, S/W→H/W) 변화, 선두업체와의 기술적 갭 축소, HTC, Motorola, RIM 등 경쟁업체의 부진 등을 주목할 필요</li> <li>- TV부문의 경우 일본 TV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3D FPR TV를 중심으로 한 제품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PBR이 1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ul>
파트론 (091700)	13,600 (-2.2)	13,900 (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노트 판매 급증에 따른 카메라 모듈 수요 확대에 의해 동사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li> <li>- 진동 모터 및 NFC 안테나 추가 공급 등 디바이스당 ASP 개선에 따른 꾸준한 외형 성장세 유지 예상</li> <li>-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이익 개선 모멘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li> </ul>
현대차 (005380)	240,500 (+6.2)	226,500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성장세 지속. 단기적인 실적 부진 우려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 해외 및 국내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효과와 함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개선세 지속 전망</li> <li>- 브랜드 가치 제고와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은 품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LG전자, 현대차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세코닉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세코닉스 (053450)	11,850 (-3.7)	12,300 (5/10)	130	18	14	2,025	5.9
- 증설효과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부문에서 큰 폭의 이익 성장 예상. 또한 차량당 카메라 탑재수 증가세(기존 1개에서 7~8개로 증가)와 블랙박스용 수요 증가세로 차량용 카메라 렌즈 부문의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 점, 여타 휴대폰 부품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점 등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코텍 (052330)	11,400 (+5.6)	10,800 (5/03)	183	23	20	1,530	7.5
- 카지노 시장 회복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매출처 다변화에 성공. 세계 1위 업체인 Smart(세계 시장점유율 47%)에 LCD 전자칠판 독점 납품. 올해 전자칠판 매출 215억원(+75% YoY) 예상 - 작년에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순이익은 정제되나, 안정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넥센타이어 (002350)	18,900 (+8.9)	17,350 (4/17)	1,784	182	140	1,382	13.7
- 브랜드 이미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장으로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원자재 투입단가 하락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률은 두 자리수대 회복 예상 - 생산능력 확대로 7월부터 Mitsubishi의 Lancer(중형세단)에 OE를 제공할 계획이며, 미국 및 독일 완성차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주로 해외 OE(Original Equipment) 판매는 13년부터 빠르게 증가할 전망							
심텍 (036710)	11,900 (-16.8)	14,300 (3/29)	730	75	55	1,873	6.4
- PC관련 PCB 비중이 축소되고, 모바일 기판(MCP; Multi chip packaging)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모바일 기판의 높은 매출 성장과 SSD(Solid-state Drive), 서버용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비중 확대로 안정 성장세 지속 전망 - 생산효율 개선, Product Mix 개선, 고객 다변화, 차입금 축소 등을 감안할 때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축소될 전망							
현대하이스코 (010520)	36,800 (-12.9)	42,250 (3/16)	9,147.7	469.9	332.4	4,182	8.8
- 현대/기아차라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냉연 생산능력 대폭 증가(50%). 기아의 신차 'K9'에 자동차용 강판 공급. 대형 세단용 강판 사용량은 중소형 세단 대비 10% 이상 증가. 최근 미국 내 송유관 수요 증가로 미국향 강판 수출량 증가 중. 강관부문의 영업이익률 개선 예상							
NHN (035420)	227,000 (+1.8)	223,000 (2/21)	2,374	720	533	12,634	18.0
- 온라인 광고 매출의 고성장과 신작 출시에 따른 게임 부분 매출 성장으로 2012년 매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 모바일에서도 확고하게 높은 검색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광고와 게임, 일본 포털 사업은 성장동력이 될 전망 -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게임 규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주주이익 환원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HN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전기전자: 국내와 일본 TV세트 업체들의 수익성 격차는 더욱 확대 중

### ■ 1분기 글로벌 LCD TV 수요는 여전히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

2012년 1분기 글로벌 LCD TV 출하대수는 전년대비 2% 감소한 43.4백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예상치(42.4백만대)를 소폭 상회한 수치이지만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시현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들이 나타났지만 1) 중국의 가전하향정책이 마무리됨에 따라 준절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2) 유럽에서도 재정적자 문제로 교체 수요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못했으며, 3) TV 수요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일부 전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 1분기에 LG전자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추정

1분기에 글로벌 LCD TV 시장에서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 일본업체들의 점유율은 모두 하락한 반면 LG전자는 5,8백만대의 LCD TV를 출하하여 역사상 최고인 13.4%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삼성전자는 8,9백만대의 LCD TV를 출하하여 전년 4분기의 20.6%의 점유율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 또한 TCL, Skyworth, Amtran 등 중국업체들도 중국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 ■ 국내와 일본의 TV세트 업체들의 수익성 차이는 더욱 확대 중

1분기에 국내 TV세트업체들(LG전자, 삼성전자)은 전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 주요 TV세트업체들(소니, 파나소닉, 샤프)은 모두 전년 4분기대비 악화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여 국내와 일본의 TV세트업체들의 수익성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엔화 약세의 우호적인 여건에서도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해진 요인은 1) 1) 국내 TV세트업체들의 LED TV, 3D TV, 스마트 TV 비중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여 제품믹스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2) 일본 TV세트업체들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연구개발, 마케팅, 설비투자에 소요될 자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3) 일본 업체들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가격경쟁을 주도하기 쉽지 않고, 4)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도 역시 낮아졌기 때문이다.

###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중국 저가 업체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

중국 저가 TV세트 업체들의 경우도 1분기에 중국 시장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중국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TCL이 5.8%, Konka가 0.3%, Hisense가 7.2%, Amtran이 3.2%를 각각 기록), 삼성전자(6% 수준으로 추정)와 LG전자(4% 수준으로 추정)의 TV세트 영업이익률이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TV세트 업체들이 1) 디자인에서의 열위, 2)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3) 낮은 브랜드 이미지, 4) 저가 제품 위주의 라인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당분간 삼성전자와 LG전자 점유율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SBS콘텐츠허브(046140)

## 매수(유지)

목표가: 15,000원(하향)

종가 (5/15): 10,150원

## 핵심 사업 집중 전략은 긍정적; 2분기 실적 개선 예상

## ■ 콘텐츠 유통 매출액은 확대 지속되나 목표주가는 하향

SBS콘텐츠허브의 목표주가를 2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낮춘다. 1) SBS 드라마 시청률이 크게 부각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콘텐츠 유통이 우리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수 있고, 2) 엔터테인먼트(엔터) 사업 부문이 축소되는 점, 3)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을 감안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9%, 22% 하향했기 때문이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 1,126원에 목표 PER 13.4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1) 콘텐츠 유통수익 추정치를 낮췄지만 IPTV, 스카이라이프 및 태블릿 PC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소비되면서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2) 불안 요소였던 엔터 사업을 축소해 이익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3) 2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과 낮은 valuation(12개월 forward PER 9.1배) 부담으로 매수의견을 유지한다. 매출액, 영업이익은 11년부터 향후 3년간 각각 연평균 7%, 11%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S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뉴미디어 플랫폼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1분기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1분기 매출액은 43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엔터 사업 축소에 따른 영향이 크고, 미디어 사업 부문 매출액이 3.6% 감소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80억원으로 11.5% 감소했다. 엔터 사업 축소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외주비, 투자사업비용이 줄었지만 지급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 2분기 실적 개선될 전망

2분기 영업이익은 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8.2% 증가할 전망이다. 엔터 사업 매출액을 제외한 핵심 사업 부문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9%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분기에는 ‘뿌리 깊은 나무’가 일본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감가상각비, 외주비가 감소하는 등 영업비용 통제가 예상되는 데다 11년 2분기의 이익률이 낮은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 ■ 핵심 사업 집중 전략, 12년 영업이익률 15.8%로 개선 예상

SBS콘텐츠허브는 11년말 엔터 사업을 위한 콘텐츠 자산을 10년 대비 60.8% 축소했고 12년 1분기에는 11년말 대비 10.1% 축소했다. 엔터 사업은 분기별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엔터 사업 축소를 통해 영업비용과 투자비용이 감소해 이익 안정성이 높아져 12년 영업이익률은 15.8%로 11년 대비 1.6%p 개선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55	30	29	22	1,046	44.5	33	12.9	7.5	3.3	27.9
2011A	200	28	31	23	1,063	1.6	31	11.1	5.9	2.3	23.0
2012F	201	32	31	22	1,015	(4.5)	34	10.0	4.4	1.7	18.4
2013F	228	36	36	27	1,274	25.5	39	8.0	3.5	1.4	19.7
2014F	244	38	39	30	1,396	9.6	41	7.3	3.4	1.2	18.3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농심(004370)

## 매수(유지)

목표가: 330,000원(상향)

종가(5/15): 235,500원

## 재도약의 전환점에 서다

## ■ 라면 1,000원 시대의 효과, 목표주가 330,000원으로 상향

2012년 라면 ASP는 지난 연말의 가격 인상 효과와 1,000원짜리 제품의 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8.9% 상승할 것이다. 다른 대용식과 가격 괴리가 확대돼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고가품 매출 비중 상승으로 2013년과 2014년 ASP는 전년대비 각각 4.2%, 5.1% 오를 것이다. ASP가 1% 상승하면 EPS는 4% 가량 늘어나 올해부터 동사의 펀더멘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라면사업의 가치를 상향해 목표주가를 290,000원에서 330,000원으로 조정한다.

## ■ 제품의 질이 다르다, 점유율 점진적 회복

유일한 문제인 점유율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올해부터 유통면 분야에도 신제품 출시가 증가할 전망인데, 스프와 면 제조 기술의 탁월한 경쟁력 우위를 감안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점유율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해 2012년 연간 66.7%, 2013년 67.8%로 개선될 전망이다.

## ■ 기술, 설비 혁신 투자 완료로 FCF 크게 개선

과거 6년간 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capex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일단락되어 향후 3년간 capex는 연간 900억원대로 감소할 것이다. 영업이익 증가와 투자 축소로 주가와 상관성이 높은 FCF는 2011년 79억원에서 2012년 1,178억원, 2013년 1,373억원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 삼다수보다는 EXPO와 해외에 집중할 때

동사는 삼다수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정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 판결 이전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이 동사에 불리하더라도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데다,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주가 조정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EXPO 효과와 중국, 미국 등 해외 성장에 기대를 걸 시점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083	163	184	140	24,168	9.7	232	8.4	3.1	0.8	10.5
2011F	2,171	116	128	85	14,662	(39.3)	191	15.9	4.9	0.9	5.8
2012F	2,375	151	58	15	2,644	(82.0)	229	84.7	4.0	0.9	1.0
2013F	2,572	180	199	149	25,726	873.1	259	8.7	3.1	0.8	9.7
2014F	2,773	211	237	178	28,846	19.9	291	7.3	2.3	0.8	10.8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네오위즈게임즈(095660)

## 매수(유지)

목표가: 50,000원(유지)

종가(5/15): 30,200원

## 피파온라인 2와 3는 별개다.

## ■ What's new : 피파온라인2 서비스는 지속될 수 있다. 피망을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윤상규 대표이사는 1분기 실적발표에서 피파온라인2와 3는 개발자가 다른 별개의 게임으로 EA에서 독자 개발 중인 피파3의 퍼블리싱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피파2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피파2를 EA와 공동개발해 한국과 일본(게임온)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피파2를 제외한 가이던스(매출액 10% 이상, 영업이익 20% 이상 증가 가능)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 게임 포털인 '피망'과 일본 '게임온'을 통합한 글로벌 소셜 플랫폼을 2013년 상반기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기존 게임들에 소셜네트워킹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SNG(Social Network Game)들을 출시하며, '피망'과 '게임온'의 멤버쉽과 빌링 기능도 통합할 예정이다.

## ■ Positives : 중국 크로스파이어 호조 등으로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은 1,972억원과 28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11.6%, 27.8% 증가해 컨센서스를 각각 5.9%, 13.9% 상회했다. 해외 매출이 전분기대비 17% 증가했는데, 중국 크로스파이어 매출이 준절 효과 등으로 전분기대비 20%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아바와 C9 매출도 성장세라고 밝혔다. 국내 매출도 전분기대비 5% 증가했는데 피파온라인2의 매출이 계절성과 마케팅 효과로 전분기대비 약 10% 증가했다.

## ■ Negatives : 영업비용 증가

1분기 인건비가 전분기대비 10% 증가했다. 연결기준 임직원수는 1,800여명으로 전분기수준이나 급여 인상분이 퇴직 급여에 크게 반영되면서 늘었다. 2분기에는 펜타비전 인원 재배치와 일부 개발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인력 이탈이 있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 결론 :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원 유지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원(2012년 예상 EPS 4,429원에 목표 PER 12배 적용)을 유지한다. 1) 2012년 실적은 중국 크로스파이어 호조 지속, 아바와 C9의 일본 성과 확대, 국내 스포츠 게임들의 견조한 매출 등으로 양호할 전망이다. 2) 피파온라인2 서비스는 피파온라인3 퍼블리싱 재계약 여부와 별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7월에 만료되는 예정인 크로스파이어 중국 퍼블리싱 계약도 기존 조건과 큰 차이 없이 체결될 전망이다. 3) 2012년 예상 PER이 6.8배(BW행사로 인한 희석화 감안하면 7.6배)에 불과하고, 만약, 금년 하반기부터 피파온라인2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2012년과 2013년 PER은 각각 8.3배와 10.3배로 동종업체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단위: 십억원, %, %p)

	1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85	197	6.7	186	11.6	33.1	781	768
영업이익	30	36	17.5	36	19.9	53.8	129	142
영업이익률(%)	16.5	18.2	-	19.1	-	-	16.5	18.5
세전이익	29	36	24.2	33	30.2	66.7	120	136
순이익	22	28	28.4	25	27.8	92.1	91	100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네패스(033640)

## 매수(유지)

목표가: 26,000원(유지)

종가(5/15): 21,000원

##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중

## ■ 1분기 실적은 2분기 성장의 밑거름

동사의 1분기 본사매출(585억원) 및 영업이익(81억원, 영업이익률 14%)은 우리 및 시장 추정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다.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 향 WLP(wafer level package) 및 DDI(display driver IC) 후공정 사업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iPad 등) 수요 증가로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7%) 및 수익성 상승(+3%p)에 크게 기여했다. 연결자회사 실적(네패스PTE, 네패스디스플레이)도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견고했다는 판단이다. 네패스PTE(WLP 생산)은 매출 107억원(전분기 대비 17% 감소), 순이익 14억원(순이익률 13%)을 기록했고, 네패스디스플레이(터치패널 생산)는 매출 108억원(전분기 대비 41% 감소), 순손실 25억원(전분기 대비 적자 축소)을 보고 했다.

## ■ 2분기 전망은 더욱 밝다

WLP 및 DDI 매출 증가는 2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WLP의 경우 최근 최대 고객사에 쿼드코어 모바일AP 향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최근 Apple에 오디오 코덱을 공급하는 Cirrus가 신규고객으로 편입이 되었다. 하반기부터는 주요 고객사의 PMIC(power management IC)도 WLP 제품군이 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점진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DDI 후공정 역시 계절성 효과가 작용하여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러한 실적 증가 모멘텀을 반영해 동사는 2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을 각각 650억원(본사), 100억원(본사)으로 예상한다(우리는 각각 656억원, 100억원 추정 중). 그리고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가이드نس(연결)도 각각 3,950억원, 575억원(영업이익률 15%)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기존 가이드نس: 매출 3,700억원, 영업이익률 12%). 우리는 올해 연결매출 및 영업이익을 각각 3,775억원(전년대비 37% 증가), 영업이익 507억원(전년 대비 166% 증가)으로 추정한다.

## ■ 구조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사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며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26,000원(12MF PER 12배 적용)을 유지한다. 단기적인 밸류에이션(2012F PER 12.7배)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의 실적 모멘텀, 하반기 및 내년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상승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주가도 이와 같은 기대감을 바탕으로 지난 1달간 5.8% 상승했다. 가장 시장 수요가 강력한 모바일AP 사업의 수혜주인 동사는 구조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73	29	19	11	582	(48.5)	53	28.3	7.9	2.5	8.5
2011A	276	19	2	(2)	(106)	0.0	46	NM	9.9	2.6	(1.6)
2012F	377	51	48	36	1,659	0.0	78	12.7	6.9	3.2	23.4
2013F	445	65	69	50	2,374	43.1	95	8.8	5.3	2.6	26.3
2014F	463	70	76	56	2,631	10.9	104	8.0	4.3	2.0	23.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다우기술(023590)

매수(유지)

목표가: 20,000원(유지)

종가(5/15): 12,800원

## 불확실성을 이기는 대안

## ■ What's new : 비수기에도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

다우기술의 IFRS별도 기준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인터넷서비스 및 솔루션 부문의 이익성장을 통해 전년동기비 각각 81%와 230% 상승한 50억원과 57억원을 실현하여 당사 전망인 45억원과 33억원을 무난히 상회하였다. 과거와 동일한 K-GAAP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기타수익 및 비용을 제외하여 자체 영업이익을 평가하여도, 1분기 이익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46억원을 실현하였다.

## ■ Positives : 전반적인 사업부문의 실적개선

동사의 사업성격상 1분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영업이익 46억원을 실현하여 2012년도 연간 이익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전반적인 사업부의 실적개선과 함께, 인터넷 서비스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78% 증가한 18억원을 실현하여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였다. 특히, 신규 사업인 PG(Payment Gateway)의 성장뿐만 아니라 복권사업 및 선거에 따른 문자메시지 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 ■ Negatives : 시장 약세에 따른 키움증권 수익성에 대한 우려

동사가 보유한 키움증권 가치는 다우기술 NAV에 59% 기여하는 핵심 자산인데, 최근 주식시장의 약세 지속에 따라 수익성 우려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가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키움증권은 전체 시장점유율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트레이딩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등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다우기술의 자체적인 영업가치가 확대되고 있고, 키움증권 지분 외에도 사람인HR, 다우홍콩 등 기타 유가증권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 키움증권의 대안투자 성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 ■ 결론 : 성장과 가치를 모두 검비

다우기술은 현재의 불확실한 주식시장상황속에서 성장과 가치 모두를 검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재 시가총액은 보유중인 키움증권 가치의 83%에 불과하며, 극단적으로 키움증권 가치를 배제하더라도 다우기술이 보유한 영업, 부동산, 기타 투자유가증권 가치는 4,694억원으로 추정되어 현재 시가총액을 82% 설명할 정도로 현재 주가는 저평가 되어있다. 둘째, 1분기 실적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은 향후 자체 이익성장 모멘텀을 강화시켜줄 뿐 아니라 키움증권, 사람인HR, 다우홍콩 등의 가치 역시 향후 견조한 성장을 통해 다우기술 NAV를 한 단계 상승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십억원, %, %p)

	1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7.2	44.5	(5.7)	n/a	(13.2)	10.0	187.1	n/a
영업이익	4.5	5.0	11.1	n/a	(30.7)	81.4	34.6	n/a
영업이익률(%)	9.5	11.2		n/a			18.5	n/a
세전이익	4.2	6.8	61.9	n/a	0.3	191.4	33.5	n/a
순이익	3.3	5.7	72.7	n/a	33.0	230.0	26.1	n/a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신세계(004170)

매수(유지)

목표가: 410,000원(유지)

종가(5/15): 230,000원

## 4월 부진, 5월부터 개선 전망

## ■ What's new : 4월 기존점매출신장률 역신장

신세계의 4월 총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8% 늘어나는데 그쳤다. 4월 20일 의정부점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기존점매출이 3.7%(관리기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6% 하락한 176억원을 기록했다. 부진한 외형성장에 더해 신규개점에 따른 비용부담 영향이다. 기존점매출의 역신장은 지난해 인천점 매출의 높은 base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4월 리뉴얼에 따른 영업면적 확대로 인천점 매출은 27% 증가를 기록했다.

## ■ Positives : 4월 부진은 예상된 뉴스, 5월부터 개선 전망

소비심리 등 부진한 소비지표와 전년동기 높은 base를 감안할 때, 4월 부진은 예상된 수준이다. 5월부터는 다시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5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기존점매출신장률은 약 5% 전후로 파악된다. 소비심리는 지난 1월 98에서 4월 104로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2011년 4% 수준에서 현재 3% 미만으로 낮아졌다. 올해 백화점 매출은 1~4월 저점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 ■ Negatives : 온라인몰 실적 부진 지속

신세계몰의 부진한 실적이 부담된다. 지난해 월 평균 328억원 매출에서 올해 월평균 362억원으로 약 10%의 외형성장은 나타나고 있지만 매출이익률은 낮아지고 있다(4월 신세계몰 매출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2.5%p 감소). 소비경기 부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신세계의 이익에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세계 전체 실적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며, 외형성장에 따른 점진적인 수익개선을 기대한다.

## ■ 결론 : 5월 실적 주목,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410,000원 유지

신세계의 기존점매출신장률은 5월부터 개선되어 4분기로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하이마트, 웅진코웨이, 전자랜드 등 유통업종 내 M&A 이슈에서 벗어나 있으며, 백화점 업황에 가장 탄력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까지 신규개점에 의한 영업면적 증가율도 백화점 3사 중 가장 높고, 미래의 고객 traffic과 점포 내 체류시간이 극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현재주가는 2012F PER 7.5배(삼성생명 지분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9.6배)로 market PER 보다 낮다. 신세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10,000원을 유지한다. 우리의 목표주가는 2012F PER 14.3배를 적용하여 산출했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에스엠(041510)

## 매수(유지)

목표가: 70,000원(유지)

종가 (5/15): 45,350원

## 해외 매출액의 큰 폭 증가로 분기 사상 최대 이익 달성

## ■ What's new: 해외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실적 크게 개선

에스엠의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85억원, 1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98.8%, 377.9% 늘었다. 국내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6.0% 감소했으나 해외 매출액이 402.2% 증가했기 때문이다. 1분기 실적으로 반영된 해외 활동은 1) 소녀시대 및 동방신기의 일본 정규 앨범, 샤이니 싱글 앨범 판매, 2) 11년 하반기에 일본에서 있었던 SM Town 공연 때 팔린 MD상품을 비롯한 각종 부가 상품 판매와 이와 관련한 초상권 관련 매출, 3)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의 동남아 공연 수익 등이다. 1분기 영업이익은 우리 예상치(141억원)을 하회했으나 우리 추정치는 분기별 일본 음반 판매량의 최대치를 적용한 수치였기 때문에 발표된 실적은 무난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 Positives: 디지털 음원 매출 증가, 해외 로열티 및 출연료 등 매니지먼트 매출 증가

디지털 음원 매출은 1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된다면 음원 가격 상승, 권리자 저작권접권 수익 증가로 에스엠의 수혜가 예상되고 디지털 음원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로열티 매출액과 출연료 등 해외 매니지먼트 매출액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52.7%, 813.5% 늘었다. 부가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아티스트의 초상권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연 활동 증가, 드라마 및 외식 사업 진출로 부가 사업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FRS 별도 기준 실적에서 일본 매출 비중은 45.6%이고 동남아시아 등 기타 지역은 23.8%까지 높아졌다.

## ■ Negatives: 국내 음반 매출액 감소

국내 음반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3.7% 감소했다. 가온차트 기준 1분기 국내 음반 판매량은 24만장으로 전년동기 36만장 대비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EXO-K 데뷔, 태티서(소녀시대 유닛 활동) 음반 발매 등으로 2분기 매출액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실적에 대한 우려 축소, 매수 의견 유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의 일본 공연수익, 음반 판매, 부가 상품 매출 증가로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이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크게 하락했던 주가는 개선되는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7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19.4배(에스엠 최근 4개년 PER 평균)를 적용해 산출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공연, 방송 및 광고 활동 증가로 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1.4%, 257.4%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2개월 forward PER은 13배로 valuation 부담도 완화된 상태다.

(단위: 십억원, %, %p)

	1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1.7	38.5	(7.8)	42.2	(2.2)	98.8	188.4	182.6
영업이익	14.1	11.7	(16.8)	13.8	29.9	377.9	74.3	67.0
영업이익률(%)	33.8	30.5	NA	32.7	NA	NA	39.4	36.7
세전이익	12.5	12.1	(3.3)	NA	35.1	597.3	77.7	NA
순이익	10.1	9.4	(7.0)	10.9	29.4	784.3	63.0	57.5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유진테크(084370)

## 매수(유지)

목표가: 31,300원(하향)

종가(5/15): 23,800원

## 길게 봐야 하는 장비주

## ■ 장기투자 가치가 있는 장비주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 지난 4월에 결정된 무상증자(50%, 신주 상장은 6월 7일 예정), 2) 1분기 실적 및 향후 추정치를 반영하여 31,300원(12MF PER 12배 적용)으로 하향 조정한다(기존 목표주가는 47,000원, 목표 PER 동일). 글로벌 장비업체들이 2012F PER 평균 15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의 성장성, 기술력,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단기적인 수주/매출 전망 외에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밝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 ■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다소 감소 전망

2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16%, 20%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절대 매출 규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영업이익률 24%) 유지에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주 원인은 1) 1분기 실적의 기저효과, 2) 국내 최대 고객사의 장비 발주량 둔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제2고객사로부터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진행 중인 시스템LSI 전환투자가 향후 수주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 ■ 장기적인 성장요건은 충분히 갖춘 상황

2분기 수주 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지난 1달간 5.7% 상승했다. 이는 동사의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순수 반도체장비업체인 동사는 삼성, 하이닉스의 미세공정 전환투자뿐만 아니라 NAND 및 시스템LSI 증설의 수혜주이기도 하다. 그리고 18인치 웨이퍼 연구기관인 SEMATECH(삼성전자, Intel, TSMC 등이 주도)에 LPCVD장비를 단독으로 공급, 향후 18인치용 시장 진입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 중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94	19	19	16	1,283	154.1	20	7.0	7.0	2.2	39.1
2011A	131	32	34	26	1,954	52.3	33	8.0	7.2	2.7	40.8
2012F	234	56	59	46	2,274	16.4	59	10.5	3.4	4.1	48.1
2013F	332	80	86	67	3,286	44.5	83	7.2	1.4	2.7	44.9
2014F	414	99	110	85	4,171	27.0	103	5.7	0.3	1.8	38.3

\*상기 보고서는 2012년 5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인지컨트롤스(023800)

종가(5/16): 6,810원

## 자동차 온도제어 컨트롤 부품 시장의 성장주

## ■ TMS, EMS, EP 등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로 TMS(Thermal Management System: 온도 제어 시스템), EMS(Engine Management System: 엔진 관리 시스템), EP(Engineering Plastic: 차량 경량화 부품) 등의 제품류를 생산한다. 2011년 기준 매출 구성은 TMS 35%, EMS 34%, EP 17%, 기타 14% 등이다. 당사는 현재 국내 TMS 시장의 약 90%, EP(엔진 EP 관련) 시장의 약 39%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업체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5위 수준이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기아차 37%를 비롯하여, 국내 부품업체(Kefico, Mobis, Mando) 29%, 해외업체(Audi, GM, Honeywell) 22% 등이며, 해외 직수출 비중은 약 25%이다.

## ■ 2012년 견조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기대

2012년 예상 실적은 IFRS-별도 기준 매출액 3,830억원(+7.6% YoY), 영업이익 83억원(+84.3% YoY)이다.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이 올해 725만대로 약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도 외형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는 특히 수익성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1) 제품 mix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TMS 모듈 등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2) 지난해부터 지속된 판매가격(ASP) 인상과 함께, 2008~2009년 신규로 수주된 고마진 신규 부품들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3) 공정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의 관관비 절감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1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900억원(+8.0% YoY), 영업이익 18억원(+38.5% YoY) 수준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2012년 예상 PER 10.3배, 성장성, 밸류에이션을 감안한 접근은 유효

2012년 예상 실적 기준 현재 PER은 10.3배 수준이다(IFRS-별도 기준). 당사는 2011년 기준 총 14개의 연결 대상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중국, 인도, 미국, 말레이시아의 현지 생산법인을 제외한 의미있는 연결 대상 법인은 LCD 디스플레이용 Top, Bottom 사시(Chassis)류를 양산하는 인지도스플레이와 인지정밀제조유한공사 등이 있다. IFRS-연결 기준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150억원(+4.2% YoY), 492억원(+11.0% YoY)으로, 연결 기준 올해 예상 PER은 4.4배 수준이다. 연초 이후 주가는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며 약 40%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1) 본사 기준으로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TMS 등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2) 인지도스플레이, 인지정밀제조유한공사 등 수익성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높아 보인다. 실적 개선과 시장 경쟁력을 감안한 접근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8A	221.5	7.2	4.8	4.0	266	(55.4)	15.2	8.2	3.6	0.3	4.1
2009A	217.9	2.7	5.4	5.2	359	35.0	10.9	9.2	6.4	0.4	4.8
2010A	303.1	3.4	5.0	2.6	181	(49.6)	10.8	31.1	10.9	0.7	2.3
2011A	355.9	4.5	7.5	7.0	479	164.8	12.5	10.9	8.6	0.7	5.9
2012F	383.0	8.3	11.7	10.0	660	43.4	18.6	10.3	7.7	0.9	8.1

주: K-IFRS(별도) 기준. 2012년 실적은 회사측이 제시한 가이드를 반영하여 추정

\*상기 보고서는 2012년 05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5/09(수)	05/10(목)	05/11(금)	05/14(월)	05/15(화)	05/16(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50.29	1,944.93	1,917.13	1,913.73	1,898.96	1,840.53
	등락폭	-16.72	-5.36	-27.80	-3.40	-14.77	-58.43
	등락종목						
	상승(상한)	295(11)	381(8)	198(8)	259(21)	211(14)	178(14)
	하락(하한)	536(1)	431(0)	606(1)	569(2)	616(0)	669(3)
	ADR	86.12	85.08	80.80	73.31	70.91	66.96
	이격도						
	10 일	98.80	98.61	97.43	97.57	97.22	95.00
	20 일	98.44	98.29	97.06	97.12	96.60	93.97
코스닥	투자심리	50	50	40	30	20	10
	거래량 (백만 주)	463	418	530	392	517	420
	거래대금 (십억 원)	4,894	4,380	4,335	3,965	5,115	5,469
	코스닥지수	491.56	494.27	493.66	488.53	480.50	465.01
	등락폭	-3.04	2.71	-0.61	-5.13	-8.03	-15.49
	등락종목						
	상승(상한)	306(16)	522(17)	290(16)	251(17)	249(11)	137(6)
	하락(하한)	635(2)	395(5)	641(2)	695(11)	708(4)	825(5)
	ADR	89.75	91.94	89.14	78.81	74.05	69.63
코스닥	이격도						
	10 일	101.25	101.59	101.11	99.86	98.19	95.42
	20 일	100.20	100.65	100.45	99.51	98.08	95.26
	투자심리	50	60	6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460	485	491	494	524	478
	거래대금 (십억 원)	1,686	1,673	1,845	1,918	1,883	1,618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706.8	1,053.8	1,309.1	226.3	172.4	499.7	104.9	60.6	245.1	445.6
	매도	2,434.6	1,552.7	1,269.0	227.9	161.4	521.0	102.2	52.9	203.7	259.0
	순매수	272.2	-498.9	40.1	-1.5	11.0	-21.2	2.7	7.7	41.4	186.5
	05 월 누계	1,912.1	-2,697.5	602.9	41.8	104.7	242.4	-27.1	92.7	148.4	182.5
	12 년 누계	-2,996.9	8,161.9	-2,429.9	565.4	1,187.2	-3,448.0	-3.0	454.7	-1,186.0	-2,735.1
코스닥	매수	1,502.0	54.7	66.9	5.6	8.4	28.9	4.8	3.4	15.9	15.5
	매도	1,492.1	72.7	63.0	5.3	7.0	24.6	9.2	7.5	9.4	11.2
	순매수	9.8	-18.1	3.8	0.3	1.3	4.2	-4.5	-4.1	6.5	4.4
	05 월 누계	-118.4	-81.0	159.1	20.0	46.0	52.6	3.5	4.9	32.2	40.3
	12 년 누계	1,082.6	-50.4	-627.5	-77.7	-8.3	-410.6	-19.5	-34.9	-76.5	-404.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7,267	전기,전자	-67,585
화학	12,507	금융업	-5,542
음식료품	9,666	기계	-4,109
삼성전자	13,344	SK하이닉스	-62,451
삼성SDI	12,633	삼성전기	-14,271
KT	7,502	SK텔레콤	-8,220
현대모비스	6,669	엔씨소프트	-6,832
CJ제일제당	6,496	삼성전자우	-6,44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9,415	전기,전자	-9,671
서비스업	9,397	운수창고	-3,718
유통업	6,046	기계	-2,882
삼성전자	34,250	SK하이닉스	-25,237
KT	6,485	삼성전기	-7,521
한국전력	5,865	LG디스플레이	-6,888
현대중공업	5,318	기아차	-5,710
LG화학	5,222	STX팬오션	-4,79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은행	8,427	제조업	-1,940
전기,전자	3,268	유통업	-1,714
건설업	819	화학	-891
외환은행	8,369	SK하이닉스	-2,485
삼성전자	2,909	KT&G	-1,940
GS건설	1,742	제일모직	-1,553
삼성테크윈	1,476	삼성물산	-1,109
한국타이어	872	현대위아	-97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9,221	철강및금속	-7,192
서비스업	6,030	금융업	-2,724
보험	3,621	건설업	-1,751
삼성전자	24,243	LG디스플레이	-4,921
한국전력	3,297	SK이노베이션	-3,944
NHN	2,730	SK하이닉스	-2,951
GS	2,111	현대차	-2,900
현대중공업	2,104	POSCO	-2,832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4,291	전기,전자	-52,214
운수장비	30,329	금융업	-9,086
서비스업	19,777	기계	-7,338
삼성전자	83,967	SK하이닉스	-83,307
현대모비스	13,814	삼성전기	-18,284
NHN	12,059	LG디스플레이	-16,395
KT	11,476	SK텔레콤	-14,804
제일모직	10,551	삼성전자우	-14,501
한국전력	10,525	LG전자	-12,993
삼성SDI	8,970	삼성물산	-9,668
삼성중공업	8,901	신한지주	-6,826
외환은행	7,941	KT&G	-5,603
고려아연	7,899	STX팬오션	-4,29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5,576	전기,전자	-331,550
제조업	4,168	운수장비	-58,917
증권	2,334	서비스업	-24,037
삼성전자우	15,397	삼성전자	-318,227
제일모직	8,838	NHN	-17,339
SK C&C	8,764	현대중공업	-16,841
현대위아	8,581	삼성SDI	-16,408
삼성생명	8,579	LG화학	-15,309
삼성테크윈	7,371	현대차	-14,518
삼성전기	7,313	기아차	-13,836
하나금융지주	6,470	현대모비스	-12,598
삼성엔지니어링	5,055	POSCO	-10,417
엔씨소프트	5,015	LG전자	-10,15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3,503	반도체	-3,538
방송서비스	1,401	인터넷	-1,020
전문기술	1,340	소프트웨어	-294
컴투스	1,983	덕산하이메탈	-2,085
네오위즈게임즈	1,563	네패스	-1,106
CJ오쇼핑	1,408	다음	-1,020
CJ E&M	1,244	AP시스템	-648
유진테크	1,214	서울반도체	-51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434	오락,문화	-896
운송장비,부품	1,406	방송서비스	-672
전문기술	1,215	음식료,담배	-471
성우하이텍	1,260	파라다이스	-804
파트론	1,186	CJ오쇼핑	-672
CJ E&M	1,141	이녹스	-515
네오위즈게임즈	1,074	하림	-487
다음	1,071	에이블씨엔씨	-31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934	반도체	-1,263
디지털컨텐츠	278	음식료,담배	-882
금융서비스	112	IT부품	-799
태광	511	하림	-744
성광벤드	436	네패스	-446
게임빌	408	파트론	-383
이트레이드증권	112	덕산하이메탈	-364
CJ오쇼핑	109	에스엠	-36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140	사업지원	-1,509
음식료,담배	921	IT부품	-878
전문기술	899	금속	-518
매일유업	921	모두투어	-977
CJ E&M	905	멜파스	-680
AP시스템	646	하나투어	-533
에스엠	564	파라다이스	-441
성우하이텍	446	포스코엠텍	-428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3,734	반도체	-4,434
전문기술	3,509	IT부품	-2,507
운송장비,부품	2,330	사업지원	-1,167
CJ E&M	3,272	덕산하이메탈	-3,443
네오위즈게임즈	2,506	네패스	-1,439
컴투스	2,180	하림	-1,231
성우하이텍	1,547	셀트리온	-1,138
유진테크	1,312	인터플렉스	-932
CJ오쇼핑	1,262	모두투어	-902
링크웨어	989	에이블씨엔씨	-797
매일유업	933	이녹스	-796
성광벤드	872	JCE	-796
메가스터디	761	멜파스	-71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5,071	반도체	-4,290
방송서비스	458	디지털컨텐츠	-3,134
오락,문화	330	컴퓨터서비스	-1,885
다음	5,385	덕산하이메탈	-3,449
실리콘웍스	3,446	게임빌	-1,774
메디포스트	1,144	유진테크	-1,282
파트론	1,057	컴투스	-1,151
에이블씨엔씨	802	셀트리온	-1,034
위메이드	598	OCI머티리얼즈	-921
에스에프에이	591	메가스터디	-912
CJ오쇼핑	536	이녹스	-899
테라리소스	515	씨젠	-890
하이룩코리아	472	디오텍	-772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신도리코	32 일	에스원	26 일
현대백화점	15 일	우리투자증권	6 일
SK케미칼	12 일	제일모직	5 일
한국전력	12 일	현대상선	5 일
LS	11 일	신한지주	5 일
롯데쇼핑	11 일	S-Oil	4 일
삼성SDI	10 일	SKC	4 일
기업은행	10 일	삼성엔지니어링	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33 일	다음	6 일
SDN	19 일	동국S&C	6 일
SBS콘텐츠허브	15 일	하이록코리아	5 일
디지털시스템	15 일	매일유업	4 일
메가스터디	8 일	성우하이텍	3 일
포스코케미칼	7 일	한국토지신탁	3 일
평화정공	7 일	게임하이	3 일
동국산업	6 일	현진소재	3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312,589	SK하이닉스	43,987
제일모직	75,773	호남석유	42,024
POSCO	66,976	신한지주	35,804
현대차	66,142	기아차	28,997
삼성화재	56,554	제일모직	21,664
한국전력	42,768	SK텔레콤	16,074
KT	42,660	S-Oil	14,727
삼성테크윈	34,978	삼성엔지니어링	14,090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7,914	다음	29,004
CJ오쇼핑	12,132	덕산하이메탈	3,439
컴투스	10,285	하이록코리아	2,978
네오위즈인터넷	6,439	에스엠	2,228
에스엠	6,151	AP시스템	1,629
게임빌	4,958	알에프텍	1,102
성우하이텍	3,573	에스에프에이	1,019
서울반도체	3,539	코텍	999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보험	7,803	1,896	9,699
-	-	-	-
-	-	-	-
제일모직	10,551	8,838	19,390
삼성생명	1,086	8,579	9,666
S-Oil	571	4,111	4,682
현대그린푸드	2,729	105	2,834
만도	805	957	1,762
금호타이어	986	703	1,690
SKC	1,291	80	1,371
현대해상	564	724	1,288
SK케미칼	773	490	1,262
후성	433	806	1,239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방송서비스	1,127	458	1,586
금융서비스	585	35	620
농업	405	21	426
네오위즈게임즈	2,506	137	2,644
CJ오쇼핑	1,262	536	1,798
성우하이텍	1,547	124	1,672
파트론	510	1,057	1,567
메디포스트	319	1,144	1,462
매일유업	933	246	1,180
평화정공	639	1	641
하이록코리아	43	472	514
캠트로닉스	407	28	435
농우바이오	405	21	42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아이에스동서	25 일	효성	26 일
하이닉스	12 일	대한항공	14 일
카프로	9 일	남양유업	13 일
두산인프라코어	9 일	롯데쇼핑	13 일
풍산	9 일	모토닉	12 일
OCI	8 일	GS건설	11 일
현대상선	8 일	한일이화	11 일
STX	7 일	대우건설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브로드밴드	7 일	포스코컴텍	23 일
미래나노텍	7 일	인터파크	23 일
포스코 ICT	6 일	휴맥스	15 일
셀트리온	5 일	웹젠	12 일
하나투어	4 일	SBS콘텐츠허브	10 일
포스코엠텍	3 일	STS반도체	8 일
KCC건설	3 일	한국정밀기계	8 일
원익IPS	3 일	KTH	6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158,101	삼성전자	-748,708
호남석유	-130,582	현대차	-61,284
엔씨소프트	-64,010	삼성중공업	-54,183
SK이노베이션	-54,703	한국전력	-39,085
LG디스플레이	-43,969	LG화학	-38,681
한진해운	-33,764	LG전자	-36,390
현대건설	-31,239	NHN	-34,742
LG화학	-30,296	KT	-28,803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29,759	포스코 ICT	-8,139
덕산하이메탈	-7,972	OCI머티리얼즈	-7,872
다음	-6,862	네오위즈게임즈	-7,534
실리콘웍스	-4,711	셀트리온	-5,195
모두투어	-4,613	솔브레인	-2,828
인터플렉스	-2,909	성광벤드	-2,807
포스코 ICT	-2,686	게임빌	-2,394
성광벤드	-2,643	CJ오쇼핑	-2,068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52,214	-331,550	-383,764
통신업	-3,393	-9,486	-12,879
운수창고	-5,534	-4,970	-10,504
SK하이닉스	-83,307	-4,413	-87,720
LG디스플레이	-16,395	-8,117	-24,512
LG전자	-12,993	-10,151	-23,144
현대차	-3,734	-14,518	-18,252
SK텔레콤	-14,804	-1,146	-15,949
POSCO	-1,302	-10,417	-11,719
삼성물산	-9,668	-437	-10,105
호남석유	-2,509	-3,912	-6,420
SK이노베이션	-4,155	-1,377	-5,532
두산	-1,538	-3,672	-5,210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4,434	-4,290	-8,724
IT부품	-2,507	-1,152	-3,659
소프트웨어	-550	-1,838	-2,388
덕산하이메탈	-3,443	-3,449	-6,892
셀트리온	-1,138	-1,034	-2,172
네패스	-1,439	-610	-2,048
이녹스	-796	-899	-1,695
모두투어	-902	-320	-1,222
OCI머티리얼즈	-60	-921	-981
씨젠	-78	-890	-968
인터플렉스	-932	-4	-935
디오텍	-116	-772	-888
인프라웨어	-500	-266	-76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메디포스트	97	28,107
엔씨소프트	53	12,689
LG전자	182	12,688
삼성중공업	212	7,415
삼성전자우	10	7,249
SK텔레콤	47	6,433
삼성엔지니어링	21	4,158
POSCO	10	3,88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네오위즈게임즈	92	2,827
메디포스트	11	1,003
아이컴포넌트	79	920
셀트리온	14	608
다음	4	498
에스엠	10	444
게임빌	6	422
슈프리마	28	413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170	4,155,869
POSCO	7,425	2,828,978
LG전자	36,537	2,568,547
OCI	7,638	1,630,680
현대차	5,164	1,293,491
기아차	9,688	782,776
SK하이닉스	30,022	759,548
현대중공업	2,981	758,54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227	572,741
서울반도체	6,049	129,153
덕산하이메탈	2,214	58,669
원익IPS	6,469	52,403
네오위즈게임즈	1,440	43,475
차바이오텐	3,325	28,661
안랩	266	27,983
다음	236	26,631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전기,전자	3,698	서비스업	-1,152
운수창고	2,599	건설업	-1,079
운수장비	2,442	의약품	-250
STX팬오션	1,780	녹십자홀딩스	-1,749
우리금융	1,735	대우건설	-994
삼성중공업	1,361	신한지주	-575
SK하이닉스	1,259	LG	-545
대우인터내셔널	1,079	대한생명	-510
한국타이어	854	후성	-327
GS	811	한전기술	-309
동국제강	722	하나금융지주	-309
주연테크	600	LG화학	-277
삼성전기	583	대우송도개발	-24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422	제약	-4,130
기계,장비	90	도매	-371
운송장비,부품	84	의료,정밀기기	-150
STS반도체	496	셀트리온	-4,233
크루셜텍	109	삼천리자전거	-400
하나마이크론	106	에스맥	-324
원익IPS	90	EMLSI	-160
파라다이스	81	솔고바이오	-141
성우하이텍	75	포스코 ICT	-119
파트론	63	유진테크	-116
JW중외신약	62	서울반도체	-102
메디포스트	62	에스엠	-82
코닉글로리	60	큐리어스	-65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5/10(목)	05/11(금)	05/14(월)	05/15(화)	05/16(수)
외국인	8,161.9	-2,697.5	-1,218.6	-208.3	-170.0	-157.7	-187.0	-498.9
기관계	-2,429.9	602.9	301.3	135.5	-19.2	116.9	32.2	40.1
(투신)	-3,448.0	242.4	74.9	86.4	-44.9	64.5	-11.6	-21.2
(연기금)	-1,209.0	139.7	114.7	34.4	6.4	20.9	10.7	43.4
(은행)	454.7	92.7	41.8	4.8	19.1	12.7	-2.6	7.7
(보험)	1,187.2	104.7	-24.9	-14.9	-34.5	3.0	10.5	11.0
개인	-2,996.9	1,912.1	901.8	244.4	266.3	93.9	24.1	272.2
기타	-2,735.1	182.5	15.5	-171.5	-77.0	-53.1	130.6	186.5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5/09(수)	05/10(목)	05/11(금)	05/14(월)	05/15(화)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50.29	1,944.93	1,917.13	1,913.73	1,898.96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584.2	17457.6	17436.7	17198.7	17363.6
(증감액)	2735.7	1996.5	3611.7	-204.6	-126.6	-20.9	-238.0	164.9
(회전율)	52.6	51.5	34.2	38.1	35.3	36.3	35.1	41.2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202.2	-76.4	135.3	-15.5	411.4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568.5	4601.8	4595.6	4618.7	4587.5
미수금	240.2	192.3	187.7	183.2	177.5	191.1	167.4	192.0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5/09(수)	05/10(목)	05/11(금)	05/14(월)	05/15(화)
전체 주식형	97,395	-6,374	497	113	1	70	169	161
(ex. ETF)		-6,875	342	47	-19	51	144	51
국내 주식형	67,899	-4,875	582	127	20	83	182	144
(ex. ETF)		-5,381	427	62	0	64	157	34
해외 주식형	29,496	-1,500	-85	-15	-19	-13	-13	18
(ex. ETF)		-1,494	-85	-15	-19	-13	-13	18
주식 혼합형	11,568	-516	27	-2	32	3	-2	-1
채권 혼합형	18,624	136	28	-14	-12	18	-93	34
채권형	46,096	-234	-212	54	-40	-65	-37	-174
MMF	72,007	18,376	8,165	215	-1,812	144	-173	-50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5/10(목)	05/11(금)	05/14(월)	05/15(화)	05/16(수)
한 국	7,280	5,509	-1,046	-182	-145	-137	-162	-419
대 만	1,604	1,717	-1,073	-71	-316	-75	-214	-398
인 도	8,847	2,183	172	64	33	75	-	-
인도네시아	977	271	-228	-34	-35	-21	-61	-77
태국	2,558	96	-175	-157	-36	12	6	-
남아공	-309	-851	49	-18	28	43	-4	-
필리핀	811	366	-44	11	5	-13	-47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05/09(수)	05/10(목)	05/11(금)	05/14(월)	05/15(화)	05/16(수)
회사채 (AA-)	4.21	4.03	4.04	4.00	4.01	4.00	3.99
회사채 (BBB-)	10.01	9.65	9.66	9.61	9.62	9.62	9.61
국고채 (3년)	3.34	3.37	3.40	3.37	3.38	3.38	3.38
국고채 (5년)	3.46	3.49	3.52	3.49	3.50	3.50	3.49
국고채 (10년)	3.79	3.76	3.79	3.75	3.75	3.74	3.73
미 국채 (10년)	1.88	1.85	1.87	1.88	1.76	1.77	-
일 국채 (10년)	0.99	0.86	0.87	0.83	0.85	0.85	-
원/달러	1,151.80	1,140.40	1,142.50	1,146.60	1,149.20	1,154.10	1,165.70
원/엔	1,492.00	1,434.00	1,430.00	1,434.00	1,441.00	1,441.00	1,450.00
엔/달러	77.24	79.55	79.92	79.96	79.77	80.13	80.39
달러/유로	1.29	1.29	1.29	1.29	1.28	1.27	1.26
DDR3 1Gb (1333MHz)	0.64	0.71	0.71	0.71	0.70	0.70	-
NAND Flash 16Gb (MLC)	2.81	2.15	2.14	2.12	2.13	2.11	-
CRB 지수	305.30	294.83	294.59	291.80	288.45	289.14	-
LME 지수	3,306.0	3,435.0	3,477.8	3,422.6	3,358.0	3,338.9	-
BDI	1,738	1,156	1,146	1,138	1,132	1,130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96.81	97.08	96.13	94.78	93.98	-
금 (달러/온스)	1,566.80	1,594.20	1,595.50	1,584.00	1,561.00	1,557.1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06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5월 10일	257.89	258.15	0.88	0.26	0.24	258,379	95,234	2,218
5월 11일	254.00	253.50	0.84	-0.50	0.07	208,632	100,339	5,105
5월 14일	254.11	254.60	0.76	0.49	0.03	234,276	97,073	-3,266
5월 15일	252.32	252.40	0.73	0.08	0.27	263,344	97,231	158
5월 16일	243.93	242.10	0.71	-1.83	0.08	362,757	102,290	5,059

###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5월 10일	-7,367	2,221	2,231	1,468	703	-168	228	0
5월 11일	-2,114	1,552	-1,003	-694	-517	-205	410	0
5월 14일	2,967	-1,706	210	-1,244	1,436	208	-190	0
5월 15일	-1,357	1,277	719	967	407	54	-574	0
5월 16일	65	1,465	-2,062	-61	-1,128	-342	-362	0
누적포지션	-20,236	2,347	17,195	8,259	10,351	-127	-1,008	-230

###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5월 10일	899	582	-318	621	510	-111	279	72	-207	6,486	7,432
5월 11일	783	533	-249	584	500	-84	198	33	-165	6,549	7,328
5월 14일	856	557	-299	701	498	-203	155	60	-96	6,585	7,268
5월 15일	934	987	53	781	759	-22	153	229	75	6,553	7,311
5월 16일	1,029	1,073	44	864	767	-97	165	306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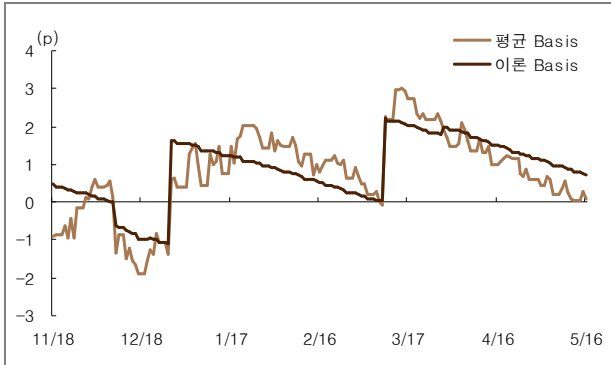
###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7.82	12,950	1,186,469	0.30	265.00	22.00	2,284	-121	28.23
18.10	30,309	1,041,338	0.49	262.50	19.25	1,538	-135	24.57
17.92	41,130	1,013,349	0.70	260.00	17.50	5,816	-1,197	26.29
17.74	32,023	907,463	0.99	257.50	14.90	6,267	-725	23.31
18.17	34,720	765,731	1.50	255.00	13.35	19,011	-2,139	24.91
18.77	14,563	198,778	2.21	252.50	11.40	25,380	-1,583	24.21
18.92	13,651	88,250	2.99	250.00	9.80	84,629	-1,436	24.43
18.72	6,041	42,476	3.85	247.50	8.00	89,530	1,710	23.40
19.11	6,668	23,384	5.05	245.00	6.75	139,722	-7,295	23.87
19.35	3,880	10,330	6.40	242.50	5.65	439,063	-2,752	24.34
19.86	2,856	8,120	8.00	240.00	4.90	736,099	-2,965	2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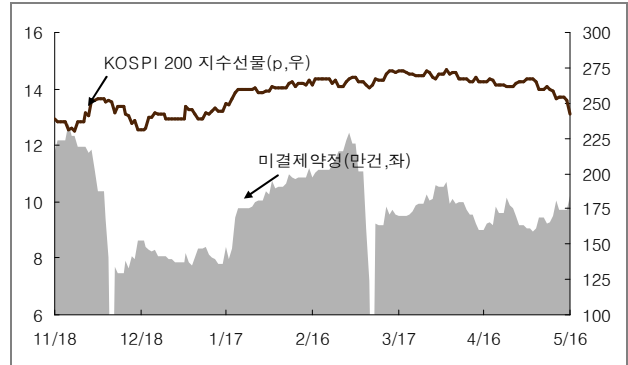
##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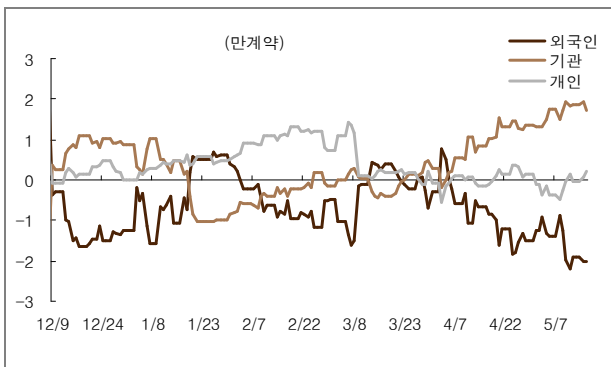
- 평균 Basis: 0.08 (전 거래일 대비 0.19 하락)
- 이론 Basis: 0.71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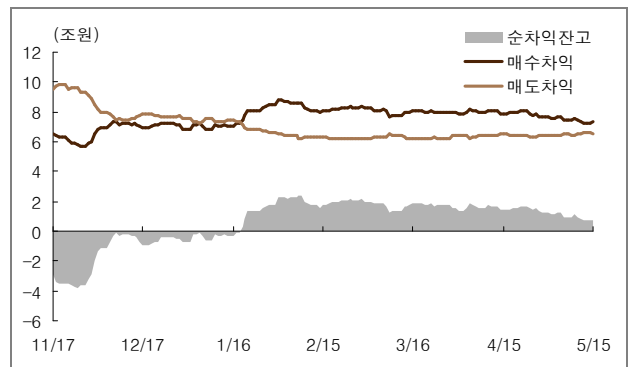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5,059 계약 증가한 102,290 계약
- 선물가격(242.10): 전 거래일 대비 10.3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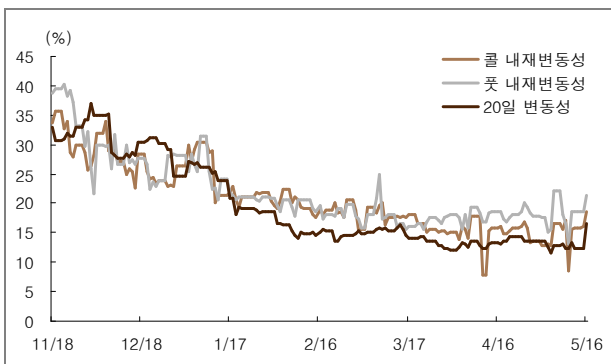
- 외국인: 65 계약 순매수
- 기관: 2,062 계약 순매도 / 개인: 1,465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1,409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973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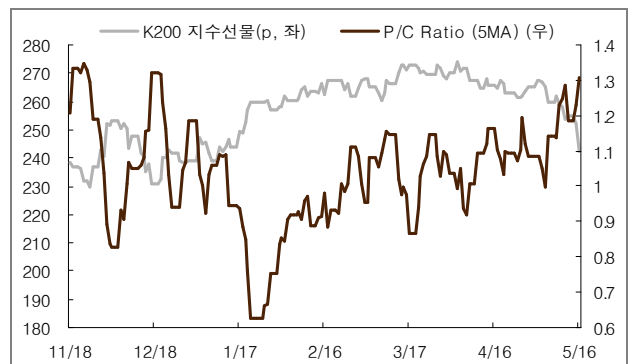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8.7% / 풋 21.4%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6.62%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6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31 기록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7	8	9	10	11
<b>美&gt;</b> 3월 소비자신용지수 (\$21.355B, \$9.800B, \$8.735B) <b>유럽&gt;</b> 5월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24.5, -15.3, -14.7) (5/6) 프랑스 2차 대선, 그리스 총선	<b>韓&gt;</b>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4%, n/a, 2.8%) <b>美&gt;</b> 5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48.5, 48.0, 49.3)	<b>韓&gt;</b> 3월 통화공급 M2 YoY (0.0%, n/a, 0.7%) <b>美&gt;</b>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7%, n/a, 0.1%)	<b>韓&gt;</b> 금통위 금리 결정 (3.25%, 3.25%, 3.25%) <b>美&gt;</b> 4월 수입물가지수 YoY (0.5%, 0.8%, 3.4%) 3월 무역수지 (-\$51.8B, -\$50.0B, -\$46.0B)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6.7만, 36.8만, 36.5만) <b>中&gt;</b> 4월 무역수지 (\$18.43B, \$9.90B, \$5.35B) 4월 수출 YoY (4.9%, 8.5%, 8.9%) 4월 수입 YoY (0.3%, 10.9%, 5.3%) <b>日&gt;</b> 3월 경상수지 YoY (-8.6%, -17.1%, -30.7%)	<b>美&gt;</b>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9%, 2.1%, 2.8%) 5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77.8, 76.0, 76.4) <b>中&gt;</b>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0.7%, -0.5%, -0.3%)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4%, 3.4%, 3.6%) 4월 산업생산 YoY (9.3%, 12.2%, 11.9%) 4월 소매판매 YoY (14.1%, 15.1%, 15.2%) 4월 신규 위안 대출 (681.8B, 780.0B, 1,010.0B) 4월 통화공급 M2 YoY (12.8%, 13.3%, 13.4%) <b>日&gt;</b> 4월 통화량 M2 YoY (2.6%, 2.9%, 3.0%)
14	15	16	17	18
<b>유럽&gt;</b> 3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2.2%, -1.4%, -1.8%) EU 외무장관 회의  실적발표> 韓 대우인터내셔널, 현대해상, KCC, S&T중공업, 솔브레인, 포스코컴텍, 게임빌 美 Groupon	<b>韓&gt;</b> 4월 수출물가지수 YoY (2.0%, n/a, 0.0%) 4월 수입물가지수 YoY (1.7%, n/a, 3.5%) <b>美&gt;</b>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3%, 2.3%, 2.7%) 5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17.09, 9.00, 6.56) 5월 NAHB 주택시장지수 (29, 26, 25) <b>유럽&gt;</b> 유로권 1분기 GDP YoY SA (0.0%, -0.2%, 0.7%) EU,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 <b>中&gt;</b> 4월 실질 FDI YoY (-0.7%, 2.8%, -6.1%)  실적발표> 韓 현대미포조선, 효성, 농심, 고려제강,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에스엠 美 Home Depot	<b>韓&gt;</b> 4월 실업률 (3.4%, 3.4%, 3.4%) <b>美&gt;</b> 4월 주택착공건수 MoM (n/a, 4.7%, -5.8%) 4월 건축허가 MoM (n/a, -4.5%, 4.5%) 4월 산업생산 MoM (n/a, 0.6%, 0.0%)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1.7%) 4월 FOMC 회의록 공개 <b>유럽&gt;</b> 4월 유로권 CPI YoY (n/a, 2.6%, 2.7%) 3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n/a, 3.8B, 3.7B) <b>日&gt;</b> 3월 기계수주 YoY (-1.1%, 4.4%, 8.9%)	<b>美&gt;</b> 5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n/a, 10.0, 8.5) 4월 경기선행지수 MoM (n/a, 0.1%, 0.3%)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5만, 36.7만) <b>日&gt;</b> 3월 산업생산 YoY (n/a, n/a, 13.9%) 1분기 GDP 연간화 QoQ SA (n/a, 3.5%, -0.7%)  실적발표> 韓 한국전력 美 Wal-Mart	<b>韓&gt;</b> 4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1.6%) 4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n/a, n/a, 3.2%) <b>美&gt;</b> G8 정상회담(5/18-19일)  실적발표> 韓 아시안항공
21	22	23	24	25
<b>美&gt;</b> NATO 회담(5/20-21일)  실적발표> 美 Campbell Soup	<b>美&gt;</b> 4월 기준주택매매 MoM <b>유럽&gt;</b> 5월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 <b>中&gt;</b> 5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미확정)  실적발표> 美 Best Buy, Dell	<b>美&gt;</b>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4월 신규주택매매 MoM 3월 주택가격지수 MoM <b>유럽&gt;</b> 3월 유로권 경상수지 SA EU 특별 정상회담 <b>日&gt;</b> 4월 수출 YoY 4월 수입 YoY BOJ 정책금리 결정	<b>美&gt;</b>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b>유럽&gt;</b> 5월 PMI 제조업 5월 PMI 서비스  실적발표> 美 VeriFone, Costco	<b>韓&gt;</b> 5월 소비자자기대지수 <b>日&gt;</b> 4월 국내 CPI YoY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만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